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야당 지지자와 중도층의 분노 참여 그리고 여당 지지층의 낮은 참여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결정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근본 원인은 국민의힘에 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당은 그 동안 집권당으로서 인제 공급과 국정 비전 제시와 주도의 정치적 선도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한 달에 두 번도 만나자'고 했다는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의 정례 회동이 지금도 지켜지지 못하는 게 현재 집권 여당의 위상이다.

무기력한 여당을 만든 사람은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어진) 방침을 잘 따르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여당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의 주체는 정당이냐 대통령실을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쳐다보달라'는 주문은 오히려 대통령의 뜻이라며 '국정운영에 있어 때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쓴소리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최근 언급은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한다.

총선 전초전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패배하고 총선

보수의 재(再)구성, 여당이 시작이다

을 6개월 앞둔 지금 시점에 윤 대통령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됐다. 그것은 대통령의 총선 목표는 무엇인가이다. 대통령의 총선 목표는 '과반 안정 의석'인가 아니면 '윤석열 친위대' 확보인가.

대통령의 선택이 후자라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하면 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불가피하다. 총선 승리의 야권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3연승을 향해 정치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도 지금처럼 한다면 그 끝은 '대통령 탄핵'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안정 의석의 확보는 '2022년 대선 승리의 중도보수 연합 복원'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제부터 정치 승부사 윤석열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일 때라는 것이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와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김태우 득표율이 유사한 수준이다. 30%대 박스권이다.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한 의견도 '6대 3.5' 언저리로 나뉜다. 이는 윤 대통령을 앞세운 선거가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총선 승부는 어렵다. 보선 직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의 '대통령 지지율 20%'대는 위험 신호다. 20%대 후반의 지지율은 취임이후 두 번째의 최저치 수준에 걸친다. 다음 주 여론 흐름이 중요한 이슈다. 특히 70% 전후로 알려진 중도층의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평가는 결정적이다.

대통령 지지율 회복과 대선 승리의 중도보수 연합 복

원을 위해서는 국정 기조 쇄신이 요구된다. 정세성 복원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정은 이제 마감할 때다. 새로운 국정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비서실 개편과 내각 쇄신의 인사는 총선 승리를 향한 대통령의 변화를 상징하는 첫 걸음이다.

새로운 국정 과제와 대안 제시는 국민의힘 몫이다. 국민적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게 정당이기 때문이다. 집권당은 나아가 총리와 내각을 선도해야 한다.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여당은 국민 삶의 현장으로 향해야 한다.

출발은 집권 여당의 정상화다. "누구를 자르십시오. 쳐내야 합니다" 하는 건 권력 다름에 불과하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급은 잘못된 정당 이해(理解)다. 정당은 권력 투쟁의 장(場)이어서 더욱 견고해진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과 시대정신의 어젠다가 정당에 등장한다.

일요일 의총 후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임명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공무원 조직 같다면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여당 실패는 정권 실패의 전주곡이다.

'시한부 연명'의 두 번째 기회, 김기현 대표가 할 일은 총선을 앞둔 정치와 정당의 시간을 위한 마중물이다. 차별한 변화가 아니라 요란한 변화가 필요한 시간의 입구에서 김 대표가 할 일은 자기희생이다. 심판의 시간을 향한 여승, '보수의 재구성'은 국민의힘에서 시작돼야 한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얼마 전 제19회 항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다. 중계를 보면서 힙합 응원도 했고 승리의 기쁨도 함께 했다. 그리고 아쉽게 패한 선수들의 울음에 '그래도 잘 했다' 응원하며 어느덧 감정 이입이 되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참 많았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탁구 혼합복식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보여준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장우진 선수가 전지희 선수의 메달과 옷깃이 엉킨 것을 풀어주는 장면을 본 관중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메달만큼이나 값진 것을 보았다. 참으로 즐길 줄 아는 젊은 세대의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중국 선수들이나 북

즐길 줄 아는 선수들의 밝은 얼굴

한 선수들을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기쁨보다는 패배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우리나라 선수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첫째로는 자기의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거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뿌듯함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을 몸소 피부로 느끼며 사는 그들이기에 국가대표라는 무게에도 저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선수들 간의 폭행이나 강압적인 서열문화가 지배했던 것은 사실이다.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종목이나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젠을 계기로 잘못을 청산하고 한층 더 자유롭고 활기찬 모습을 자주 봤으면 싶다.

무엇인가를 즐긴다는 것은 실력이나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니 숙달되고 익숙해지니 편하고 쉽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이 있어야 더 나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것들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된다.

논어 용야편 18장에 보면 "아는 자는 좋아하는 지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지만 못하다"라는 글이 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 주눅이 들고 힘이 들어 간 나머지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패배자가 되어 그 생각에 갇혀 버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이씨 조선' '이 왕가'라는 호칭 유감

총 50장으로 나뉜 일어로 썼는데 제1장은 아예 '이 왕조의 탄생'이라는 소제목까지 붙였다. 그 서문에 '일본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일본 교육을 받고 일본어가 일상어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썼다'고 했다. 이해가 간다. 조선정이라는 말이 속에 부모님들도 쓰지 않은 한글을 자녀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과묵한 탓인지 나라를 세운 사람의 성을 국명으로 삼은 나라는 없는 줄 안다. 고씨 고구려, 은씨 백제는 물론 왕건이 세웠다고 왕씨 고려나 왕 왕조라 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귀국 후 황백형 씨의 안내서를 들은 게 뭇 처음 쓰시마에 들렀을 때 큰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다. 고종의 딸 덕혜옹주와 소 다케우키의 결혼 봉축 기념비 앞에서다. 남편이 대마도면 양자였기에 옹주의 첫 시댁 방문 기념으로 은광 노부자, 솜을 굽거나 군사시설 노동자로 강제 차출된 망국 후손들이 한 푼 두 푼 추렴으로 세웠다며 이름과 액수가 적혀있다. 일본은 한 푼 지원도 안 했으면서 그들의 관여와 간섭 속에 이뤄졌을 것은 뻔하다. 비석머리에 고종의 딸은 이 왕가로, 남편은 소가(宗家) 백작으로 새겨놓았다. 하찮은 일본 백작이 조선왕실과 격이 같다는 의미다.

이 나라가 주권을 잃었을 때는 그랬다 치자. 광복 후 국가적 항의는 없었는지 국사편찬위원회에 물었다. 몇 차례 시도는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본은 경술국치 후 조선왕실을 자기들 왕공족과 같은 일개 가문으로 격하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은 사실 이란이다.

국가 호칭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뜻도 알아봤다. 표

한 홍콩의 영화배우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우리나라의 자유로운 작풍 활동과 제작에 대해 부러운 가득한 말을 했다. 자국의 그렇지 못한 상황과 정치적인 현실을 꼬집으며 우리나라 문화계를 향한 부러움을 표현한 것이리라.

성경의 인물 중 다윗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지만 그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 했다. 그의 삶의 이야기 중 가장 기뻐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할 날이 등장하는데 그 날은 왕위에 올라 왕관을 쓰게 된 때가 아니었다.

그 날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날이었다. 그 기쁨에 못 이겨 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었는지 웃이 벗겨질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행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었다.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괴로우나 원망할 때도 감사할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승리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해낸 인간. 성경의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것으로 표기된 시편은 73편에 이른다.

박국 3장 17절에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도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라고 고백한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 아닐까 싶다.

그런 천왕에게 인간만 쓰는 고유의 성을 붙인다는 것은 상상 못할 불경이다. 반면 조선은 사람이 세운 나라이므로 성씨를 붙여야한다는 발상 중의 하나가 이씨 조선이요 이 왕가다. 심지어 오규쿠라 덴신(岡倉天心) 같은 사람은 이나라 시조신인 단군을 아마테라스 동생의 아들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몇 개월 전에도 일본은 고종 어들이자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을 강제로 끌고 가 살게 했던 저택을 '구 이 왕가 도쿄 저택'이라며 도쿄도(都)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래도 누구 하나 이 나라 마지막 왕조는 조선이지 이씨 조선이나 이 왕가가 아니라고 항의한 사람이 없다.

나라 망한 처음은 한 번이면 족하다. 후회는 언제나 늦다. 양보하면 저들도 달라지리라 보는 것은 허허로운 꿈이다. 우리를 위해 어깨를 견고 할 일본이 아니다. '고기가 예뻐 먹잇감을 주는 늑사냥꾼은 없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다. 태양은 찬란히 빛나도 터널 속에 갇힌 듯없이 감감한 미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社說

15년만의 전남 전국체전, 화합의 '올림' 컸다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7 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전국체전은 2008년 여수 이후 15년만에 전남에서 열린 대회로 무엇보다도 전남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는데 의미가 크다. 선수는 물론 자원봉사자와 도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전남의 역량과 잠재력을 국내외에 입증했다.

사실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3년만에 열리다보니 국내는 물론 해외 교포들로부터도 관심을 받았다. 17 개 시도와 해외에서 선수 1만 9895명과 임원 9894명 등 3만여 명이 참가해 49개 종목에서 열전을 벌인 정도로 흥행에서 성공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개최사 주제 '웅비하라 전남의 땅 올림'과 폐회사 주제 '올림:하나된 우리'가 보여주듯 도민들은 따뜻한 환경과 훈훈한 지원으로 감동과 화합의 '올림'을 선사했다.

'지지부진' 여순사건, 진상규명 속도 높여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이 75 주기를 맞았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75주기를 맞아 어제 고흥에서 정부 합동 추념식이 열렸고 여수와 순천에서도 창작 오페라 공연하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순사건위원회가 출범 2년을 맞았는데도 소극적인 활동으로 진상규명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순사건위원회는 명칭부터가 '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다.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핵심이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았는데 정작 활동은 실망스럽다. 위원회는 지난해 출범이후 1년 10개월 동안 7067건의 희생자 신고를 접수했지만 고작 4.8%인 345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마쳤다. 법적 활동시한이 내년 10월 5일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조사 진척도가 5%도 안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4000여 명이 넘는 도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자발적으로 응원단을 꾸려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응원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전남도 등 공무원들도 안전 체전을 위해 교통·숙박·식품 등 분야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대회 성공에 일조했다. 잡사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체전이 남긴 성과다. 수목비엔날레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에서 열리는 대규모 이벤트와 연계함으로써 전남을 찾은 선수와 관광객들이 더 머물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 전남연구원 대회 생산 유행효과를 1343억 원으로 추정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스포츠 이벤트는 잘 치를 경우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효과가 있다. 전남 도민들은 치밀한 대회 준비와 높은 시민의식으로 역대 최고의 대회를 만들어 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만큼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길 바란다.

인 중앙위원회와 전남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실무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실무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중앙위로 보내면 중앙위에서 희생자 및 유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활동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중앙위와 실무위간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실무위가 신고 접수 건수의 22%에 해당하는 1545건을 중앙위에 올린 것도 속도가 느린데 중앙위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심의하다보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 출범에 여순사건 희생자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조사 진척률이 바닥을 기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여순사건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나이가 많아 서둘러 조사를 마쳐야 한다. 중앙위와 실무위간 소통을 강화해 속도를 높이고 인력 보강과 직권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활동 시한 연장 등도 고려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골을 넣을 때 기본은 언제나 짜릿하다. 그런데 상대 공격을 막고 슈팅을 쳐냈을 때의 기분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세리에 A AC밀란의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는 최근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다. 리그 경기에서 팀의 골키퍼가 퇴장 당하자 골키퍼 장갑을 끼고 파상 공세를 온 몸으로 막아내 1대0 승리를 지켰다. 지루는 짧은 임팩트 강한 활약으로 세리에A 주간 베스트11에 공격수가 아닌 골키퍼로 이름을 올렸다.

지루의 변신은 1996년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또 다른 재능

를로는 공격수에서 미드필더로 바꿔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국내 프로 야구에서도 두산 감독 포함해 5만타를 몰아친 이종범은 연장 10회 초 수비에서 유격수가 아닌 포수 마스크를 쓰고 나와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대타 활용으로 포수 자원을 모두 써버린 김용승 감독의 고육자책이었다. 이종범은 총알 같은 송구로 2루 도루를 저지하고, 뛰어난 투수 리드와 안정적인 투구로 다시 한 번 야구 천재임을 증명했다.

그런데, 이종범이 포수 마스크를 썼을 때 가장 긴장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정답은 해태 선수들도, 코칭 스태프도, 팬들도 야구에서도 두산 감독 포함해 5만타를 몰아친 이종범은 연장 10회 초 수비에서 유격수가 아닌 포수 마스크를 쓰고 나와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대타 활용으로 포수 자원을 모두 써버린 김용승 감독의 고육자책이었다. 이종범은 총알 같은 송구로 2루 도루를 저지하고, 뛰어난 투수 리드와 안정적인 투구로 다시 한 번 야구 천재임을 증명했다.

그런데, 이종범이 포수 마스크를 썼을 때 가장 긴장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정답은 해태 선수들도, 코칭 스태프도, 팬들도 야구에서도 두산 감독 포함해 5만타를 몰아친 이종범은 연장 10회 초 수비에서 유격수가 아닌 포수 마스크를 쓰고 나와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대타 활용으로 포수 자원을 모두 써버린 김용승 감독의 고육자책이었다. 이종범은 총알 같은 송구로 2루 도루를 저지하고, 뛰어난 투수 리드와 안정적인 투구로 다시 한 번 야구 천재임을 증명했다.

그런데, 이종범이 포수 마스크를 썼을 때 가장 긴장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정답은 해태 선수들도, 코칭 스태프도, 팬들도 야구에서도 두산 감독 포함해 5만타를 몰아친 이종범은 연장 10회 초 수비에서 유격수가 아닌 포수 마스크를 쓰고 나와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대타 활용으로 포수 자원을 모두 써버린 김용승 감독의 고육자책이었다. 이종범은 총알 같은 송구로 2루 도루를 저지하고, 뛰어난 투수 리드와 안정적인 투구로 다시 한 번 야구 천재임을 증명했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address and phone numbers.